

## 반려동물 생애 동안 반려문화를 경험하는 반려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mpanion People Experiencing Companion Culture During Their Pet's Life

박지연<sup>1</sup> · 고정민<sup>2†</sup>

ji-Eon Park<sup>1</sup> · Jeong-Min Ko<sup>2†</sup>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companion people who raise companion animals experience companion culture from this adoption throughout their lives. So far, studies have focused on viewing pets as pets or for their utility or looking at the positive emotions that companion animals provide to humans.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overall culture that companion animals and their family consistently experience together throughout the animal's life.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 people with experience of raising companion animals. Six categories and 23 subcategories were fou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mpanion people who adopted pets for various reasons tried to improve their pets' social skills, took an interest in their nutrition, and experienced visits to pet culture spaces. Second, at the same time, they had a communal experience of raising a pet by using the SNS function, and they were able to study in depth by sharing the pet's diet. Third, with attention to social phenomena, they carried out large-scale protest activities aimed at relevant organizations when animals were placed in poor environments, and when the animals were transferred to shelters, etc., they did not give up their attention and continued to provide help such as follow-up donations and showed a sense of responsibility. Through this study, we were able to understand structurally the experiences of companion people who experience companion culture throughout their pet's life. It was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lated systems and laws, cultivate personal order and consciousness, and increase elements of companion culture in life overall.

**Key words:** Communion, Companion Animal, Companion Culture, Companion People, Pet Culture

#### 요약

본 연구는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반려인들이 입양부터 생애주기 동안 반려문화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동안 연구들은 애완동물로 보거나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효용감이나 긍정적인 감정 위주로 연구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반려동물 생애주기 동안 꾸준히 함께 경험하는 문화 전반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 경험이 있는 10명을 심층 면담하고 총 6개 범주와 23개의 하위범주를 발견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이유로 반려동물을 입양한 반려인들은 본인의 반려동물 사회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영양학적인 관심, 반려동물 문화 공간을 방문하는 경험을 했다. 둘째, 동시에 SNS 기능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을 양육한다는 공동체적 경험을 했으며 반려동물의 식단을 공유하여 심도 있는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공부라 아닌 사료 성분을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사람용 영양제를 반려동물에

<sup>1</sup> 박지연: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사수료

<sup>2†</sup> (교신저자) 고정민: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E-mail: spin3001@naver.com / TEL: 02-320-1742

맞추어 급여하기도 했다. 셋째, 사회적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동물들이 있으면 관련기관에 항의 활동을 규모 있게 진행하였는데 해당 동물들이 보호소 등으로 인계되면 관심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후속적인 기부 등의 도움을 주며 반려인으로써 책임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반려동물 생애 동안 반려문화를 경험하는 반려인에 관한 경험을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반려문화가 더욱 개선되기 위해 관련한 제도와 법안 개선, 개인의 질서와 의식 함양, 생활 전반의 반려문화 요소 증가가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교감, 반려동물, 반려문화, 반려인, 펫문화**

## 1. 서론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그 가족들의 사회적 활동이 반려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다. 반려동물 문화는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문화를 구축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의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형태부터 국가정책과 관련한 반려문화까지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현재는 1인 가구, 펫팸족(펫과 패밀리의 합성어로 강아지를 양육하는 가족 단위를 의미한다), 고령인구화가 되어가면서 반려동물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존중받아 마땅함을 부여하여 이들을 반려동물로 칭하고 있으며 이들과 누리는 다양한 형태의 생활이 반려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반려인들이 그들의 반려동물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요소로 의, 식, 주와 관련된 기본 생활양식부터 운동장, 유치원, 반려동물 장난감 등의 부가적 문화 요소를 누리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제도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또는 유기 등을 방지하고자 등록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도(The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2021)와 인식표부착, 목줄 등의 안전조치 등이 있다. 이렇듯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을 법적으로 동물 법과 펫티켓(펫과 에티켓의 합성어)으로 정하고 있고 비반려인 또한 반려문화가 확산하여 가면서 이 규칙을 함께 지켜나가고 있다. 그러나 기초적으로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제반적 문제들에 의한 반려동물 정체성 확보에 혼란이 있으며(Shin, 2014) 나아가 법들이나 매너들이 주로 반려인들에게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 비반려인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상황이다(Lee & Kim, 2020).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은 애완동물 또는 법적으로 해석하여 소유물 등으로 인식하고 반려동물들의 가족을 주인, 소유자 등으로 해석하거

나 명명하는 사례가 많았다. 동시에 가까이에 두고 귀여워하거나 즐긴다는 의미의 애완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효용감이나 긍정적인 감정 위주의 수단적 성격에 관해 연구 되어왔다. 기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파악해 볼 때에도 반려문화는 대체적으로 선진국에서 먼저 성장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 또한 그 추세를 따라가고 있으나 과도기를 겪고 있는 반려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문화적 요소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반려문화 속 다양한 요소들이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 동시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 가지 경험, 감정, 일방향적인 즐거움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던 과거 연구와 비교하여 생애 동안 함께 문화를 경험하는 가족으로 인식하면서 나아가 동물권리 향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된 반려 가족과 반려문화 정착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들이 반려문화를 향유하거나 지켜보면서 경험한 바를 탐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반려문화를 경험한 반려인들을 심층 인터뷰하여 문화적 요소들을 탐색하고, 소비 행위, 제도적 경험 내용에 따라 반려문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반려문화

과거 가축화되어 있던 동물들은 애완동물에 이르게 되고 『1983년 10월 27-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동물

행동학자로 노벨상 수상자인 K.로렌츠의 80세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가 주최한 자리에서 개, 고양이, 새 등의 애완동물을 종래의 가치성을 재인식하여 반려동물(companion animal)로 부르도록 제안하였고 승마용 말도 여기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사람의 장난감이라 칭해지던 애완동물에서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을 반려동물로 칭하게 되었다(The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2022).

동물과 인간은 상호 필요에 따른 관계가 아닌 가족, 감정공유 관계인 유대관계(HAB: Human Animal Bond)로 진화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2014년에 도입된 것을 기반으로 한국의 반려문화는 정착한 지 오래 되지 않았고 외국의 반려동물 문화는 조금 더 앞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동물과 관련한 연구를 바탕으로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육체와 정신적 건강의 조화와 행복한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Hoffman, 1991; Siegel, 1993),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의 애착 관계가 반려동물과 관련한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Burns, 2008; Pauliuc & Fu, 2018), 반려문화 현황과 개선을 위한 연구(Shin, 2014; Lee et al., 2018; Kim et al., 2018; Lee & Kim, 2020), 반려동물의 사후에도 관심을 갖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Dawson, 2007; Choi et al., 2023).

## 2.2. 반려동물과 심리적 건강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더욱이 반려동물들에게 더욱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들은 감정적으로 더욱 더 지지감을 얻게 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Garrity et al., 1989). 반려동물을 통한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에 대한 기대는 반려동물을 통해 건강과 정신을 회복하고자 하는 동물 보조요법으로도 존재한다. 미국에서는 동물을 통한 심리치료인 AAT (Animal Assisted Therapy)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반려동물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평온감, 자신감, 불안 감소, 스트레스 감소, 긍정적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Arkow, 2021). 이처럼 반려동물에게 쏟는 감정에서 얻는 정서적인 교감과 다시 반려동물에게서 받는 위로와 긍정적 감정 경험은 반려인들에게 큰 의미로 작용한다.

또한 혼자 사는 개인의 외로움과 비교하였을 때, 사

회적, 심리적으로 지원을 덜 받는 반려인들이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통한 외로움과 우울을 애착으로 해소하고 있다(Antonacopoulos & Pychyl, 2010). 나아가 반려동물 애착이 단순한 소유, 양육이 아닌 이들과의 애착과 만족감이라는 관계성이 반려인들에게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Kim & Park, 2017).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이라는 존재만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닌 이들과의 문화적 활동, 애착 관계 등을 통해 교감을 하고 이에 따라 심리적 건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을 의인화하는 다관계적 과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소중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 관계를 남다르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관계로 인식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두고 있는 보호자들에게는 생활에 심리적 가치와 관계적인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Dawson, 2007).

## 2.3. 반려동물 식이

반려동물 사료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수분이 10% 미만이고 1년간 보관할 수 있는 건사료, 수분함량이 75%인 페이스트 형태로 캔 포장이 된 습식사료, 간식류에 속하는 트릿류가 그 분류이다(Hwang et al., 2013, *korean Association of Animal Assisted Psychotherapy*).

세계의 반려동물 시장 트렌드는 사료에서 식품, 펫 휴머니제이션, 적극적 소비자 참여, 시장 세분화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 수준 상승에 따라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오메가3, 유산균 등이 반려동물 사료에 첨가되고 있고 동물성 원료 비율 증가와 유기농 원료를 더하고 곡물 미첨가 즉, 그레이프리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동결건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의 시장 참여가 확산하며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검사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등의 선진국의 개발과 비교해 국내 펫푸드 시장은 해외 브랜드 업체가 점유율을 크게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업체는 중저가 제품으로 고급화 추세에 뒤처져 있다(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6).

국내의 펫푸드를 비롯한 연관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고급화,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해당 산업에 대해 육성 대책을 설립하고 특화 제도와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펫푸드 글로벌 전략산업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Ministry of Agriculture et al., 2023).

### 3. 연구방법 및 참여자

#### 3.1. 연구방법

반려문화적 요소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나 반려동물과 관련한 논문으로는 주로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연구와 문화기술지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양적 방법론으로의 접근으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이 문화를 향유하거나 접하면서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설문지만으로는 이들이 감정과 경험을 느끼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문화 요소들의 관계성을 깊이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들의 실제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반려 문화 요소에 두는 가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론은 일상적 상황에 숨어 있는 맥락들을 포착하고 사회적인 행동들을 설명하는 방법론이다. 그중에서도 연구 주제에 대하여 연구 대상자의 경험에 대해 본질적 의미를 찾는 방법은 현상학적 방법론((phenomenological methodology)이다.

본 연구는 이를 활용하여 반려인들이 반려문화에 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모든 경험과 가능성을 포함해 다양한 탐구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반려문화가 가지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에 대한 인식이라는 하나의 경험적인 현상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인 실질적 이론을 도출하고 개발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의 연구방법으로 자료 수집, 분석을 거치고 연구 대상자의 경험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하였다. 따라서 반려동물 생애 동안 반려문화를 경험한 연구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수집해 분석하고 반려동물 생애 동안 반려문화를 경험하는 반려인에 관한 연구를 현상학적 방법인 지오르기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지오르기 현상학적 연구방법인 전체 인식, 기술문 의미 단위 구분, 학문적 용어로 변형, 의미 단위

의 구조 통합을 거치는 1단계 ‘전체 인식, 현상의 초점에 맞추어 단위로 분석하고 텍스트의 중요한 내용과 의미를 나누는 2단계 ‘기술 내용을 의미 단위로 구분하기’, 의미 단위의 구분 후 단어 조합을 통한 주제화와 연구에 해당하는 용어로 바꾸는 3단계 ‘학문적 용어로의 변형’, 변형된 단어를 주제화하고 연구 주제에 맞는 용어로 바꾸고 기존 기술문의 문맥을 살펴 통합하는 4단계 ‘변형된 의미 단위의 구조 통합’을 거쳤다(Giorgi & Giorgi, 2003).

#### 3.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반려문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들을 바탕으로 반려문화 속 다양한 요소들이 이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반려동물의 생애 동안 문화를 접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려인의 경우에는 반려인 또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반려인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간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7년으로 설정하였다. 주로 반려동물로 양육하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적으로 노령견과 노령묘의 시기에 접어들게 되는 시기를 장기간으로 기준하게 되었다. 동시에 반려동물을 직접 대면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반려인에게도 연구 참여 의사를 타진하였고, 유목적 표집법(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에 애착을 가진 반려인들에게 추천받기도 하였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설정하였다. 반려인의 경우, 반려동물을 1회 이상 양육한 경험이 있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반려문화와 관련된 소비 및 참여 활동을 매달 3회 이상, 연평균 40회 이상 경험한 자로 한정하였다. 특히 참여자의 문화생활 횟수나 수준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생활을 더욱 선호하는 참여자들을 우선으로 선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표정이나 어투로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일 수 있고 적극적인 문화 경험을 하는 반려인들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함이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 연구 참여자 중 유목적

Name	Gender	Occupation	Age	Characteristic related to pets	
				Number of times raised pets	Types of pets raised
A	F	Housewife	50s	5 times	Dog, Rabbit
B	M	Company employee	50s	1 time	Dog
C	M	Pet food Manufacturing	30s	more than 10 times	Dog, Parrot, Raccoon, etc.
D	M	Job seeker	30s	2 times	Cat, Dog
E	F	Pet food Manufacturing	40s	more than 5 times	Cat, Dog, etc.
F	F	College student	20s	1 time	Dog
G	F	Company employee	20s	1 times	Cat
H	M	Livestock industry	50s	more than 6 times	Cat, Dog, Rabbit, etc.
I	F	Company employee	20s	more than 3 times	Dog
J	M	Company employee	20s	1 time	Dog

Fig.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표집법을 통해 총 10명의 연구참여자에게 소셜네트워킹서비스를 활용하여 연구의 취지와 목적성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 의사를 전달받는 과정을 거쳤다. 참여 의사가 있는 참여자들에게는 별도로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학문적 가치,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 정보보호 및 연구/면담 도중 참여 의사 철회 등의 권리를 설명하였다. 연구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 뒤 최종적으로 참여 의사를 한 번 더 전달받았으며 최종 선정된 연구 참여자 10인은 Fig. 1로 나타내었다.

### 3.3. 연구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22년 0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0달에 걸쳐 1:1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인터뷰의 내용은 모두 당일 전사하였고, 연구 참여자가 충분히 여유 있는 시간대를 상의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평균 45분에서 180분가량 진행되었다.

연구 목적이었던 반려인들의 반려문화 인식에 관한 경험을 끌어내기 위하여 인터뷰 방식은 사전에 준비한 인터뷰 질문을 먼저 제시하고 개방형 질문을 계속하여 이어 나가는 반구조화 면담 방식을 취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의 경험에 따라 문화적 요소들과 면담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면담 방식은 구조화된 면담과 비교하였을 때 더 많은 경험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조성하기에 질적으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통된 질문을 제시하는 과정이 있기에 비구조화된 면담과 비교해서는 체계적인 면담 구축이 가능하다.

인터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연구의 이해도를 높여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 것을 설명한 후 참여자의 동의에 따라 인터뷰 내용을 각종 도구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뷰 진행 중 알게 된 내용이나 느낌을 기록하고 이들의 경험에 대해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터뷰 중 연구참여자의 인상과 비언어 표현을 관찰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문화 요소의 관계성이나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문화 범위 확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 맥락을 놓치지 않고 이들의 표현 언어를 순서대로 전사하였다.

윤리적 연구에 따라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을 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연구 참여자에게 얻고 싶은 정보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개인적인 사유로 말할 수 없는 내용과 관련한 무리한 답변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사전 인터뷰 시 연구소개와 비밀보장, 익명 표기 등에 관한 사항과 연구 중단 관련 권리를 재차 설명하였다. 면담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고지하였다.

## 4. 연구 결과 및 논의

지오르기 4단계 연구 방법을 활용해 반려동물 생애 동안 반려문화를 경험하는 반려인의 경험 범주를 6개의 범주와 23개의 하위 범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나타난 인터뷰 대상자들의 경험을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주를 뒷받침하며, 대상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현상의 본질과 의미를 담았다.

### 4.1. 상황적 구조 진술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의미구조에 대한 체계적 진술을 위해 경험적 사례를 상황과 함께 기술하기를 권한다(Shin et al., 2004). 따라서 심층면담을 통해 얻게 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과 함께 표2에 제시한 핵심 구성요소들을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대상자들 간의 경험 유사성과 차이에 대해 분석하고 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기술하였다.

해당 내용은 Table 1로 나타내었다.

Table 1. The experience categories and subcategories of companion people experiencing companion culture throughout their life

Components	Subcomponents
Pet adoption	Feeling of loneliness
	Sense of responsibility and interest in rescued animals
	Adoption based on family consensus
	Meeting friends' pets
Experience in pet culture	Feeling of freedom and refreshment in dog play spaces
	Enrollment in a structured dog kindergarten program
	Participation in pet fairs and community events
	Visiting pet-friendly places
Utilization of social media features	Making friends through pets
	Sharing recommended products
	Joint purchases of popular items
	Sharing pet diet plans
Interest in diet/nutrition	Feeding premium food with different drying methods
	Researching nutrition for pets
	Supplementing human-grade supplements
	Experimenting with homemade natural and snack foods
	Purchasing unique ingredients and antibiotic-free animal welfare foods
interest in social phenomena	Experience of donating to animal protection organizations
	Interest in animal protection laws
	Activism in protesting relevant institutions
Improvement of pet culture	Need for improvements in animal-related legislation
	Studying pet nutrition
	Disappointment with fellow companion people
	Lack of societal and lifestyle aspects of pet culture

4.1.1. 반려동물 입양

과거 반려동물에 대한 입양은 주로 샵에서 이루어졌으며 반려동물 분양이라는 용어를 써왔다. 오늘날의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반려동물 입양이라는 용어를 썼으며 반려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게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반려동물 입양의 동기는 첫째, 외로움을 느낌(연구참여자 D), 둘째, 유기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관심(연구참여자 J), 셋째, 가족들의 합의로 입양(연구참여자 A, B, E, F, I), 넷째, 지인들의 반려동물 만나기(연구참여자 C)로 나타났다. 혼자 사는 개인의 외로움과 비교하였을 때,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을 통한 외로움과 우울을 애착으로 해소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된다(Antonacopoulos & Pychyl, 2010).

혼자 사는데 코로나가 심해지게 되면서 집 밖에 나갈 일이 많지 않았어요. 이 시기에는 여자 친구와 가족들

과도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었거든요. 학교에 다녀와 집에 돌아오면 늘 조용함이 더 크게 느껴지고 외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없어도 혼자서 잘 있을 수 있는 반려묘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이후로는 외롭지 않아요(연구참여자 D).

유기 동물에 대한 콘텐츠를 많이 보게 되었어요. 똑같은 생명인데 선택받지 못하면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팠어요. 반려동물을 입양하게 된다면 꼭 유기 동물들을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연구참여자 J).

가족들끼리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건 어떤지 이야기하고 합의하게 되었어요. 집에 반려동물이 있으면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기도 했어요. 반려동물에 가족들 모두 집중하는 것 같고 함께 모이는 시간이 많아요(연구참여자 A, B).

친구들이 기르는 반려동물들을 만나게 되면서 점점 애정이 생기고 계속 보고 싶어졌어요. 저도 입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마리 더 입양하려고 생각 중이에요(연구참여자 C).

#### 4.1.2. 반려문화 생활 경험

연구참여자들은 반려 문화생활을 일시적인 활동이 아닌 주기적이거나 여러 회 경험하였다. 반려동물 중에서도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첫째, 애견 카페와 놀이터에 방문하였고(연구참여자 A, B, C, D, F, I, J), 둘째, 프로그램이 있는 애견 유치원에 등록하였고(연구참여자 A, B, D, I), 셋째, 반려동물 행사를 찾아 참여하였으며(연구참여자 A, C, D, F, G, I, J), 반려동물 동반 가능 장소를 방문하였다(연구참여자 A, B, C, F, G, I, J).

반려인들의 반려 문화생활의 이유는 반려동물의 행복감과 심적 건강, 육체적 건강 등이 주를 이루었다. 반려문화생활 경험에서는 반려견을 보거나 귀여워하면서 느끼는 애완성이 아닌 교감, 헌신적 성격이 나타났다.

애견 카페에 가면 우리 집 강아지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을 기르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집에서는 뛰어노는 데에 한계가 있고 평소에 산책할 때에는 하네스를 착용해야 하는데 애견 카페나 놀이터에서는 하네스도 없고 신나게 뛰어놀 수 있어 웃는 강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연구참여자 B).

다른 친구들과의 사회성을 위해서 강아지를 유치원에 등록했었어요.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는 유치원에 보내면 집에서는 전문적으로 보살피기 힘든 관절 케어라거나 기본적인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퇴근할 때 들르면 되기 때문에 직장인분들은 집에 강아지를 혼자 두어야 한다는 걱정이나 부담감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좋고요. 가끔 강아지와 함께하느라 제 볼 일을 못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유치원에 간 시간을 활용해서 볼일도 보고 있어요(연구참여자 A).

반려동물 행사는 주로 펫 페어에 참여하는 편이에요. 제품들을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좋고 제 반려동물에게

딱 맞는 제품을 찾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 가곤 해요. 요즘 지자체에서도 행사를 진행해요. 반려동물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로 반려인으로서 뿌듯함을 느껴요(연구참여자 I).

반려동물 동반 가능 장소에 가는 이유는 이 시간과 공간을 제 반려동물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달까요? 동반이 가능한 곳에서 식사하거나 디저트를 먹고 근처에 경치 좋은 곳에서 산책을 하기도 해요. 제가 좋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집에서 혼자 심심하게 있을 반려동물을 생각하면 속상하기도 해요(연구참여자 F).

#### 4.1.3. SNS 기능 활용

반려동물 관련한 SNS 기능 활용은 MZ세대에서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반려동물 양육이라는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더 나은 양육을 위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교류하고 있었다. 해당 교류의 과정을 통해 온라인상에서도 반려문화를 경험하고 특히 식이와 관련한 문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첫째, 반려동물 친구 만들기(연구참여자 C, D, F), 둘째, 추천하는 제품 공유(연구참여자 C, I), 셋째, 인기 상품 공동구매 하기(연구참여자 A, F, J), 넷째, 반려동물 식단 공유하기(C, D, F)가 있었다.

저희 강아지의 일상을 SNS에 게시하고 다른 반려동물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저희 강아지의 친구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실제로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친해져 반려동물과 함께 만나게 되기도 하고 관심사를 나누기도 해요(연구참여자 F).

추천하는 제품을 SNS에 공유하기도 하고 제품을 추천받아 잘 활용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과 비교해 보기도 할 수 있어 유용해요. 요즘에는 제품을 써보고 인스타그램 릴스로 다양한 정보들을 나누기도 해요(연구참여자 I).

인기 있는 상품들을 공동구매하고 있는데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좋아요. 가끔은 수익금 일부를 유기 동물에게 기부하는 공동구매도 있는데

기부도 하고 제품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워요(연구참여자 J).

반려동물 식단을 공유하고 있어요. 스스로에 대해 뿌듯함도 있고 제가 급여하고 있는 좋은 제품들을 다른 친구들도 한 번 급여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도 공유하고 있어요. 식단에 대한 기록은 일기 같은 느낌인데 초보 반려인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기도 해요(연구참여자 C).

#### 4.1.4. 식이에 대한 관심

소득의 일정 부분을 반려동물의 식이에 지출하고 식이에 대한 요소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메가3, 유산균 등이 함유된 사료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순도를 직접 비교하고 비교해 사료에 투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과의 애착 관계는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Pauliuc & Fu(2018)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동물성 원료와 그레인 프리, 유기농 사료는 물론이고 동물복지와 관련한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의 사료를 급여하고 있었으며 동결 또는 수분 탈수 사료 등 더 새로운 사료의 형태를 선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6년의 자료와 비교해 현재도 국내 사료보다는 해외 사료를 더 많이 선택하고 있었다(Park, 2016; National Audit Data - Domestic self-sufficiency and import status of pet food). 연구참여자들은 식이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며 첫째, 고급 사료 급여(연구참여자 A, B, C, D, G, I, J), 식이에 대한 논문 서치(연구참여자 C), 영양제 급여(연구참여자 A, C, I, J), 자연식과 간식을 직접 제조해 보았음(연구참여자 A, C, E, I), 무항생제 자연식과 간식을 구매했다(연구참여자 A, B, C, D, E, H, I).

대부분의 사료를 선택할 때 해외에서 유명한 사료들이나 건강한 강아지를 기르고 있는 SNS상 보호자들이 급여하는 사료들을 급여하고 있어요. 사료는 스팀으로 만든 사료부터 압착, 에어 드라이, 제가 판단했을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급여하고 있는 동결건조 등 많은 제조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도 다르죠. 대부분 값이 비싸지만 그만큼 가치

가 있다고 느껴요. 사료비를 많이 쓰면 그만큼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연구참여자 A).

저는 직업이 사료 제조업이다 보니 더 많은 반려동물을 만나게 됩니다. 연구를 하면서 국내에는 아직 연구가 부족해 서치에 어려움이 많지만 제 반려동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연구참여자 C).

영양제가 투여된 사료도 좋지만 저는 직접 오메가3과 유산균, 마그네슘 등을 급여하고 있어요. 순도가 중요하거든요. 논문을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강아지들의 건강과 관련이 없는 원료들을 포함해 과대광고하는 경우를 구별해 낼 수 있어요. 마음을 편하게 하자고 급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더 공부하게 되고 사람용 영양제를 반려견에 맞추어 설계해 급여하게 되었어요(연구참여자 J).

반려동물에게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주고 싶어 간단한 간식류들은 직접 만들어보기도 했지만 직접 구매하는 것이 더 건강하기도 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화식이나 자연식의 경우 조리도구들이 다르다 보니 입자도 다르고 촉촉함도 확연히 달라요(연구참여자 I).

하루에 많은 양을 급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급여할 때 건강한 음식을 급여하고 있어요. 반려동물은 더 약하기 때문에 더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녀가 대신 구매해 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동물복지나 방목해서 길러 도축하기도 한다고 권유받아 종종 이런 제품들을 먹이기도 합니다. 캥거루, 토끼, 악어 같은 음식도 급여해 봤어요(연구참여자 H).

#### 4.1.5. 사회현상에 관한 관심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을 두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물권리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지하게 되면서 보호해야 할 대상 전반에 대

한 책임감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동물을 보호하는 활동들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애완적 성격이 아닌 반려적 성격으로 더 나은 환경을 갖추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앞서는 것이었다. 첫째, 동물보호 단체에 대한 기부 경험(연구참여자 A, G, I), 둘째, 동물보호법에 관한 관심(연구참여자 A, B, C, D, J), 셋째, 관련 기관에 항의 활동(연구참여자 A, C, G, I)이 있었다.

동물보호단체에 사연이 있다고 하면 SNS를 통해 공유 하기도 하고 기부하고 있어요. 구조할 때 항의했던 동물들이 보호받거나 임시 보호되면 기부를 이어서 하기도 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은 마음들이 모여 큰마음이 될 수도 있고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상태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연구참여자 I).

반려동물 법과 관련해 새로운 이슈들이 생기면 바로 바로 참여하는 편이에요.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거나 하네스 줄 길이, 입마개 등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바로 참여했었고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거나 판례가 뉴스에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꼭 보곤 해요(연구참여자 J).

불법 농장 등에 대한 라이브 방송들이나 SNS상에 올라온 학대 사례 등을 보게 되면 다 같이 관련 지자체나 국민신문고에 항의 활동이나 서명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내용을 공유해 실제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반영되었을 때 그 힘을 느꼈어요. 반려동물을 반려하면서 모두 데려올 수 없어도 지켜내는 것은 우리 반려인들이 할 일들이니까요(연구참여자 I).

#### 4.1.6. 반려문화 개선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와 그 관심도와 비교하여 현재 관련한 제도적 마련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총체적인 문화 요소가 부족하여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반면, 식이와 관련하여 선택지가 커지고 있는 산업 속에서 보호자가 직접 공부하면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는 인지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려동물 생애 주기 동안

사회현상, 제도, 문화 요소 등에 관심을 두고 있는 참여자들은 매너 없는 반려인들에 대한 실망 등의 감정을 크게 느끼기도 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 반려문화의 현주소가 현재 과도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동물 관련 법안에 관한 개선 필요(연구참여자 A, J), 둘째, 반려동물 식이에 대한 공부 필요(A, J) 셋째, 같은 반려인들에 대한 실망(A, B, C, F, I, J), 셋째. 문화 요소의 부족(A, B, C, D, F, G, I, J)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동물권 전반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동물을 여러 방면에서 보호하는 법안 마련이 이에 비해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더 엄격하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또 아무나 동물을 길러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연구참여자 H).

간식들은 다양한 원료가 들어가지 않으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기 쉬운데 사료는 일반 보호자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가려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단순히 설명만 보고 구매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들을 고르는 수준 높은 공부를 하는 문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A, J).

특히 산책할 때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반려동물들을 책임지지 않고 배변도 정리하지 않고 몰래 도망가는 분들이 있어요. 반려동물들을 기르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인식을 저하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모르게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연구참여자 F).

반려문화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가 너무 적다고 느껴요. 생활의 전반이 반려 문화적 요소로 채워질 수 있다면 좋겠어요. 영화관, 편의시설처럼 예전에는 반려동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여겨졌던 곳들을 이제는 함께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인식, 제도, 생활 등 문화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겠죠(연구참여자 J).

## 4.2. 일반적 구조 진술

전체 맥락에서 반려문화를 경험하는 반려인과 그들의 반려동물에게 ‘반려문화’란 ‘반려동물이 더 소유나

일방적 관심의 대상이 아닌 반려인들의 가족이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과거 ‘애완동물’의 개념에서 ‘반려동물’의 개념이 정착했던 시기를 지나 반려문화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반려인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을 잘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와 적극성을 띠고 있었다. 자신의 반려동물을 잘 양육하기 위해 더욱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사회 전반의 반려동물 범주에 관한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이는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반려인들에게 반려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은 문화를 경험하고 양육하면서 배움과 동물권리, 생명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어졌다. 이 모든 경험은 적극적인 참여로 정의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하면서 외로움을 충족하거나 어린 가족이 생겼음에 기대하고 양육했지만, 양육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문화, 식이에 대한 관심 이상의 연구, 사회현상에 대해 활동하게 되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다양한 놀이 공간과 지자체의 행사, 동반 장소에 방문하며 반려문화 생활을 경험하였고 SNS를 통해 반려동물 친구를 만들고 추천하는 제품을 공유하거나 인기 상품을 공동구매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도 하며 사료의 영양 파괴가 덜하거나 성분을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반려동물 식이에 맞는 영양제를 급여하고 고급 원료들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선별하여 구매하기도 하였으며, 공부를 통해 반려동물 영양제가 아닌 사람 영양제를 반려동물의 몸에 맞추어 적정량 급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화 전반을 경험하면서 사회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화가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꼈는데, 먼저 사회적으로 동물 관련 제도나 법안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등에 비해 발전이 덜하다는 점, 두 번째로 개인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수준 높게 공부하는 문화, 세 번째로 같은 반려인들이 양육인으로서 질서를 지키는 책임감, 네 번째로 사회와 생활 전반에 반려문화 요소의 부족을 언급했다.

## 5. 결론

본 연구는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반려인들이 입양부터 생애 주기 동안 반려문화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살펴보고, 반려동물 양육 경험이 있는 10명을 심층 면담했다. 지오르기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총 6개 범주와 23개의 하위 범주를 발견했다.

연구 결과 반려동물을 생애 주기 동안 양육한 반려인들은 처음 외로움을 느끼거나 유기 동물에 관한 관심, 가족 간의 합의, 지인들의 반려동물을 주기적으로 만나는 등으로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육 과정에서 다양한 반려문화 요소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열성적인 반려인이 되었다. 애견 놀이 공간에서 오프리쉬로 자유롭게 뛰어노는 반려동물 놀이 공간과 프로그램이 갖추어진 애견 유치원에 등록하면서 반려동물의 사회성을 기르는 데에 힘썼고, 페어와 지자체 반려동물 행사에 방문하고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장소에 방문하면서 뿌듯함과 교감 등의 긍정적 감정을 경험했다. 동시에 SNS 기능을 활용하여 반려동물 친구를 만들거나 추천하는 제품을 공유하고 인기 상품을 공동구매하여 반려동물을 양육한다는 공동체적 경험을 했으며 반려동물의 식단을 공유하여 공부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반려문화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식이에 대한 관심은 SNS, 페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험하게 되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도 하며 사료의 영양 파괴가 덜하거나 성분을 분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반려동물 식이에 맞는 영양제를 급여하고 고급 원료들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선별하여 구매하기도 하였으며, 공부를 통해 반려동물 영양제가 아닌 사람 영양제를 반려동물의 몸에 맞추어 적정량 급여하기도 했다.

반려문화를 경험하면서 이들은 스스로 반려인으로써 책임감을 느끼며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동물보호법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질서를 지키고자 하고 동물권리를 해하는 현상을 발견하면 규모를 이루어 직접 항의하는 활동들을 진행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난 동물들이나 기존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에게 기부하는 활동을 어려워하지 않았다.

반려인들은 이러한 문화 전반을 경험하면서 사회적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문화가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먼저 사회적으로 동물 관련 제도나 법안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등에 비해 발전이 덜하다는 점, 두 번째로 개인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수준 높게 공부하는 문화 세 번째로 같은 반려인들

이 양육인으로서 질서를 지키는 책임감, 네 번째로 사회와 생활 전반에 반려문화 요소의 부족을 그 개선점으로 언급했다.

본 연구는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효용감이나 긍정적인 감정 위주로 연구가 되었던 반려동물을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반려동물 생애 주기 동안 꾸준히 경험하는 문화 전반을 살펴본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반려인의 측면에서 문화를 살펴 한 가지의 주제에 심도 있게 조명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수정 - 또한 반려동물의 기준은 넓으나 반려견들을 양육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많아 반려견 중심으로 초점이 더 맞추어져 있고 문화 활동에 있어 집 생활을 하는 반려동물들의 문화 활동과 비교하여 야외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 활동들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일부 범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반려동물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 REFERENCES

- Antonacopoulos, D., & Pychyl, T. (2010). An examination of the potential role of pet ownership, human social support and pet attachment in the psychological health of individual living alone. *Anthrozoös*, 23(1), 37-54. DOI: 10.2752/175303710X12627079939143
- Arkow. P. (2015). *Animal-Assisted Therapy and Activities: A Study and Research Resource Guide for the Use of Companion Animals in Animal-Assisted Interventions*. AnimalTherapy.net.
- Burns, K. (2008). Human-animal bond boosts spending on veterinary care Retrieved from <https://www.avma.org/javma-news/2008-01-01/human-animal-bond-boosts-spending-veterinary-care>
- Choi, Y. B., Lee., J. S., & Choi, S. Y. (2023). Status and improvement suggestions for domestic pet funeral service(국내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현황과 개선 방안). *Korean Association of Animal Assisted Psychotherapy*, 12(1), 11-19. Retrieved from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24506>
- Dawson, S. E. (2007). Companion animal euthanasia: The lived paradox of the human-companion animal bond (Doctoral dissertation).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Manchester, United Kingdom. Retrieved from <https://www.proquest>
- Garrity, T. F., Stallones, L., Marx, M. B., & Johnson, T. P. (1989). Pet ownership and attachment as supportive factors in the health of the elderly, *Anthrozoös*, 3(1), 35-44. DOI: 10.2752/089279390787057829
- Giorgi, A. P., Giorgi, M. B. (2003).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psychological method.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In P. M. Camic, J. E. Rhodes, & L. Yardley (Eds.),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Expanding Perspectives in Methodology And Design*. 243-273.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laser, B., & Strauss, A. (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Strategies for Qualitative Research*. Sociology Press.
- Hoffman, R. G. (1991). Companion animals: A therapeutic measure for elderly patients.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18(1), 195-205.
- Hwang, M. C., & Kim, T. S. (2013). Pets-related Market Trends and Forecasts. NHERI report 215.
- Ji, I. B., Kim, H. J., Kim, W. T., & Seo, K. C.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et-related industries. R824. Retrieved from <https://krei.re.kr/krei/researchReportView.do?key=67&pageType=010101&biblioId=509979&pageUnit=10&searchCnd=all&searchKrw=&pageIndex=3&engView=>
- Kim, M. H., Kim, J. E., No, K. Y., Choi, S. I., Han, Y. J., Hyun, D. Y., Kim, H. J., & Kim, O. J. (2018). Recognition and improvement of non-companion animal owner about the culture of using public place in Korea (국내 반려견의 공공장소 이용 문화에 대한 비(非)반려인의 인식 및 개선방안).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Animal Assisted Psychotherapy*, 7(1), 39-49. Retrieved from <https://db.koreascholar.com/>
- Kim, S. Y., & Park, H. I. (2017). Pet effect: meta-analytic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t ownership and psychological health (반려동물효과: 반려동물 소유와 심리적 건강 간 관계의 메타분석 연구). *Social Science Research*, 28(1), 101-115. DOI: 10.16881/jss.2017.01.28.1.101

- Lee, H. S., Kang, W. K., An, H. C., Do, H. T., Yoon, Y. C., Kim G. H., Jo, Y. O., Yang, E. S., Kim, M. H., & Kim, O. J. (2018) A proposal for the evolution and current status of companion animal culture(반려동물 문화 현황과 발전을 위한 제안). *Korean Association of Animal Assisted Psychotherapy*, 7(1), 51-63.
- Lee, S. Y., & Kim, K. J. (2020). The convergence study and implementation of cultural contents and interactive media art for improving companion animal culture(반려동물 문화 개선을 위한 문화콘텐츠와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융합 연구 및 구현). *Korean Science and Arts Convergence Society Research*. 38(3), 207-219. DOI: 10.17548/ksaf.2020.06.30.207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other Related Ministries. (2023). Measures to foster pet-related industries. Retrieved from [https://www.mof.go.kr/com/cmm/fms/FileDown.do;jsessionid=eu5tfMQ8VZ0GvJQ9f-m8wHpm.node20?atchFileId=ATCH\\_00000000023777&fileSn=6](https://www.mof.go.kr/com/cmm/fms/FileDown.do;jsessionid=eu5tfMQ8VZ0GvJQ9f-m8wHpm.node20?atchFileId=ATCH_00000000023777&fileSn=6)
- Pauliuc, D. C., & Fu, Y. (2018). A study on the attachment in between owner and pet and its influence on the consumption of pet food (Master's thesis). jonkoping university, jonkoping, Sweden. Retrieved from <http://www.diva-portal.org>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6). National Audit Data - Domestic self-sufficiency and import status of pet food.
- Shin, K. L., Jo, M. O., & Yang, J. H.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질적 연구 방법론). Seoul: The publishing unit of Ewha Women's University
- Shin, Y. H., (2014). Improvement in a matter for the proper popularization of companion animal-culture in Korea (국내 반려동물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문제의 제고). *Korea Society of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2(1), 702-704. Retrieved from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17465>
- Siegel, J. M. (1993). Companion animals: in sickness and in health. *Journal of Social Issues*, 49(1), 157-167. DOI: 10.1111/j.1540-4560.1993.tb00915.x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00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Sage Publications.
- The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2022). A pet registration system. Retrieved from [https://www.nias.go.kr/companion/new\\_petBoard.do?cmCode=M210524110233041](https://www.nias.go.kr/companion/new_petBoard.do?cmCode=M210524110233041)
- The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2022). Says that pets are. Retrieved from [https://www.nias.go.kr/companion/new\\_petBoard.do?cmCode=M170718155107250](https://www.nias.go.kr/companion/new_petBoard.do?cmCode=M170718155107250)
- 원고접수: 2024.02.29  
수정접수: 2024.03.25  
게재확정: 2024.03.28